

새내기株 ‘따블’에도… 더본코리아 급락에 IPO 시장 ‘꽁꽁’

더본코리아, 상장 이후 23.05% ↓
새내기株 등락률 평균 -26.38%
위츠, IPO 시장 한파 속 ‘따블’ 기록

국내 시장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기업공개(IPO)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상장한 ‘위츠’의 흥행으로 3개월 만에 따블이 등장하기는 했지만, 시장 기대감이 집중됐던 더본코리아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투심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반기 IPO 시장 대어로 등장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전 거래일보다 4.12% 하락하며 신저가를 경신했다. 상장 이후 23.05% 폭락하면서 4만원선이 깨지는 등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는 증



ChatGPT에 의해 생성된 IPO 시장의 한파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거금 약 11조8237억원을 모으면서 경쟁률 772.8대 1을 기록했다. 상장 당일 있었던 지난 6일 공모가 3만4000원 대비 51.2% 상승한 5만1400원에 마감하면서 흥행으로 평가됐으나, 기대감이 바로 꺾인 모습이다.

20일 기준 9월 들어 상장 새내기주들의 공모가 대비 주가 등락률 평균은 -26.38%로 집계됐다. 이마저도 상장 첫날 주가가 2배 오른 ‘위츠’를 제외하면 -32.88%로 떨어진다. 위츠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종목으로 공모주

시장의 한파가 지속되는 와중에 ‘따블(공모가 대비 2배 상승)’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장중 한때는 272.66%까지 오르면서 주가가 4배로 뛰는 ‘따따블’ 가능성도 기대됐으나 이후 상승 폭을 줄여나갔다.

최근 한 달 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한 새내기주들은 공모 당일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IPO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증시에 입성한 기업들의 상장 당일 주가 평균은 -6.6%에 그쳤다. 더본코리아의 흥행으로 IPO 시장의 활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오히려 이후 상장한 토모큐브(-23.4%), 에어레인(-28.5%), 노머스(-28.8%), 닷밀(-26.8%) 등이 상장 첫날부터 줄줄이 폭락했으며, 현재까지 주가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주에도 위츠를 제외한 엠오티(-22%), 에스켄(-29.1%), 사이냅소프트(-24.5%) 등이 모두 20%

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희 삼성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낮아지고 있으며 공모가 대비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IPO 시장의 흥행 여부는 국내 주식시장의 지수반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달 IPO 시장은 전체 상장 기업 중 80%가 공모가 밴드 상단 초과 했음에도, 주가 하락 이어지며 투자 심리 위축에 따른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대형 IPO 딜이었던 케이뱅크가 상장을 철회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이어 이 연구원은 “더본코리아 마저 흥행에 실패할 경우 한동안 국내 IPO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크 확대에 대한 주의를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자사주 매입보다 기업 실적개선 우선돼야”

셀트리온, 삼성전자 자사주매입 밸리
자사주 취득결정, 단기 주가 반등 뿐
이익 모멘텀 약화 대한 전환 등 필요

국내 상장사들이 떨어지는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밸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수시로 이뤄지는 임원들의 회사 자사주 매입부터 회사 차원의 자사주 매입까지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럼에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근본적인 실적 개선과 기술 향상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이날 자사주 58만 3431주를 22일부터 3개월간 장내에서 사들인다고 공시했다. 이날 장 시작 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셀트리온의 주가는 종가 기준 17만37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1.34%(2300원) 상승했다.

셀트리온의 자사주 매입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올해 239만4031주의 자사주를 취득하게 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에 투입한 총 재원은 약 4300억원에 이른다.

그럼에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올해 1월초 20만원대 회복이 쉽지 않은 모습이다. 회사는 최근 약화되는 국내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주가의 과도



셀트리온 본사

한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수시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증권사 중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목표주가를 하향하는 곳도 나왔다. 지난 11일 한국투자증권은 셀트리온에 대해 신약 집콕트라 매출이 기대치를 밑돌아 영업가치를 하향했다며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2만원으로 12% 내리기도 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 15일 폐장 후 1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 이날은 전 거래일 대비 1.99%(1100원) 오른 5만64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자사주 매입 발표 후 상승세가 이어진 건 4거래일 중 이틀뿐이었다. 특히 외국인인 18일부터 20일까지 삼성전자 순매도세를 유지했다.

통상적으로 회사나 회사 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삼성전자 본사

수는 줄고 주당 순이익(EPS)이 늘어 주가 부양 효과를 불러온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 개선과 본업 경쟁력 향상이 주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에 대해 “수급 트리거가 되는 것은 외국인의 수급 영향력”이라며 “인공지능(AI) 경쟁력 열위, 이익 모멘텀 약화에 대한 전환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고영민 다올투자증권 연구원도 “자사주 취득 결정으로 단기 주가 반등 및 하방 경직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유의미한 단서가 확인되기 전까지 상방이 제한적인 트레이딩 구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25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원적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실마리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증권 “해외주식 고객 수익 11.4兆 ↑”

테슬라·엔비디아 등 수익 증가에 역할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2일 기준 연초 대비 자사의 해외주식 고객 수익이 11조4000억원 순증해, 총 잔고 36조5000억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21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고객들의 글로벌 혁신기업에 대한 장기 투자 성향, 자산배분 전략, 그리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혁신기업 주가 상승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고객들의 수익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166%의 수익률로 고객 평가이익 약 3조3000억원을 기록했고, 테슬라는 70%의 수익률로 약 2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더했다. 아울러 마이크로소프트 42%, 애플 60%, 브로드컴 155%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위 5개

종목 모두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밈(MEME) 주식’과는 차별화된 자산배분 효과를 보여주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AI를 접목한 다양한 솔루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본사 및 영업점에서 고객 수익률 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매일 개최되는 고객 자산배분위원회에서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 AI 기반 기업 분석 리포트와 초개인화된 로보어드바이저 및 웰스텍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업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수익률 대회를 통해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인도펀드 설정액, 한 달간 229억 줄어

수익률 5.25% ↓… 주요펀드比 저조
중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인도증시가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식어가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인도펀드’ 설정액이 200억원 넘게 줄었다.

21일 금융정보분석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인도주식형펀드의 설정액은 지난 1개월간 229억원 줄었다. 이 기

간 수익률은 5.25% 떨어졌다. 중국(2.89%), 북미(1.87%), 유럽(-1.41%) 등 주요 펀드에 비하면 저조한 성과다.

상품별로는 ‘TIGER 인도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와 ‘KODEX 인도 Nifty50 레버리지(합성)’의 수익률이 각각 -10.55%, -9.40%로 부진했다. ‘KODEX 인도Nifty50’과 ‘TIGER 인도니프티50’의 최근 1개월 수익률도 -4.58%, -4.51%를 기록했다.

인도 증시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인도 대표 주가지수 니프티50은 한 달 동안 5%가량 하락했다. 기업 실적 약화가 지속된 데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확대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도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중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내수 시장 잠재력과 인구 증가 등 구조적 강점이 장기적으로 시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美 장기국채 ETF’ 순자산액 2兆

4종 합산… 연금계좌 자금유입 영향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장기국채에 투자하는 ACE 상장지수펀드(ETF) 4종 합산 순자산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장기국채 투자 4종 상품의 합산 순자산액은 지난 20일 기준 2조14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상품으로는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순자산액이 1조7546억원으로 국내 최대 미국장기채 ETF 자리를 유지했다. 뒤이어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가 1095억원,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가 866억원,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가 628억원을 기록했다.

4종 중 올해 순자산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상품은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였다. 해당 상품은 작년 말

6327억원이었던 순자산액이 연초 이후 1조1122억원 증가하며 올해에만 몸집을 175.79% 불렀다. ACE 미국30년국채선물레버리지(합성 H) ETF의 순자산액은 251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3월 상장한 달러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와 엔화노출형 상품인 ACE 미국30년국채엔화노출액티브(H) ETF 또한 상장 당일 순자산액 대비 각각 548억원, 1015억원이 증가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에 따르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 순자산액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개인투자자들의 관심과 연금계좌에서의 자금유입 덕분으로 분석된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ACE 미국장기채 ETF 시리즈에 대한 개인순매수액은 5381억원이며, 연금계좌유입액은 1조4296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정윤 기자